

# “고졸은 더내” 대출금리 학력차별

### 신한銀 신용평점 차등...감사원, 금감원 책임 지적 저학력 고객에 17억원 더받고 1만4천명 대출거절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저지른 '파렴치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은행의 대출계약서 조작에 이어 이번엔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대출금리'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을 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줬다. 고졸 이하 대출자에 13점을 준 신한은행은 석·박사 학위자에게는 54점을 줬다. 고졸자 신용평점은 석·박사 의 4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신용평점은 곧바로 대출승인 여부와 대출금리에 영향을 준다.

신한은행이 2008~2011년 개인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368명 가운데 1만4138명(31.9%)은 학력이 낮아 돈을 못 빌렸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241억원이다. 신한은행이 이 기간 취급한 15만 1648명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7만 3796명(48.7%)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 원 더 냈다. 신한은행은 처음 신용거래를 둔 고객에 한해 6개월간 학력을 신용평점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문제 삼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제출한 신용평가 모델에서 부모확률이 적정한지 따질 뿐, 학력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까지 들여다보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신한은행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최근 신용평가 모델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단기연체 정보까지 끌어오는 것도 대출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은행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등 개인신용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를 정한다. 신청자들은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잡는다. 감사원이 분석해보니 이들 단기연체자는 대부분 한 달 안에 돈을 갚는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5영업일 이상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해 대출금리를 높였다. 카드대금 41만5000원을 불과 일주일 늦게 갚은 A씨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가 2%포인트나 올라 이자를 160만원 더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7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자 3649명 가운데 777명이 단기연체를 신용등급에 반영해 대출금리가 0.1~3.2%포인트 올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닷새만 원리금을 늦게 갚아도 신용등급을 낮추는 은행들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을 회복시켜줘야 할 사유가 생겼는데도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알리지 않은 사례가 87건 적발됐다. 이 때문에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매겨져 대출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캐논 최초 미러리스 카메라 'EOS M'을 선보이고 있다. EOS M은 상용감도 100~1만2800까지 지원하며 최대 2만5600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EF 마운트 어댑터 EF-EOS M을 사용하면 약 60종의 캐논 EF렌즈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캐논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제조업 경기 회복세

### 생산·출하 증가세 전환...소비자 물가 상승은 둔화

최고 광주와 전남의 제조업 생산이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최근 광주·전남 지역 경제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중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7.9%→+2.5%)과 출하(-5.6%→+4.1%), 전남지역 제조업 생산(-1.1%→+5.1%)과 출하(-3.4%→+3.7%) 모두 전년 같은 달 보다 증가세로 전환했다.

5월 중 건축착공면적은 광주(-20.4%→+36.6%)와 전남(-6.9%→+53.6%)은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했고, 건축허가면적도 광주(+13.0%→34.8%)와 전남(-32.2%→+101.2%) 모두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미분양 아파트 수는 광주 1104가구, 전남 1719가구로 각각 전월보다 각각 164가구, 656가구 증가했다. 6월 중 수출은 광주(+5.4%→+3.0%)에선 자동차 등의 하락세, 전남

(+13.0%→+1.8%)에서 화학공업 제품의 감소세 등의 영향으로, 모두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다. 지난해 동기대비 6월 중 소비자물가는 광주(+2.2%→+1.7%)와 전남(+2.4%→+1.8%) 모두 오름세가 크게 둔화했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월보다 광주(+0.8%→+0.3%)와 전남(+0.3%→+0.0%) 모두 둔화된 오름세를 보였다. 6월 중 실업률은 광주에서 소폭 하락(3.0%→2.9%), 전남에서 전월과 같은(1.1%) 수준을 보였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이차전지 수출 4년 만에 두 배 늘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보급 확산과 세계 각국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이차전지(Secondary cell) 수출이 4년 만에 두 배 늘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이차전지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수출은 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0% 증가했다. 수입은 6억 2000만 달러로 3.7%

감소해 3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2002년 이차전지 무역수지가 첫 흑자를 기록한 뒤 사상 최대치다. 수출액이 2007년 19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매년 20%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수출은 2.8% 감소한 18억 달러, 수입은 8% 늘어난 3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등골 휘는 서민층

### 집 담보로 사교육비 총량...부자의 2.5배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 등 목적의 주택 담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1년 소득 하위 20% 가구의 담보대출 가운데 교육비 목적은 2.0%에 달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교육비 목적 담보대출 비중은 0.8%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담보대출이 고소득층보다 2.5배나 많은 것이다. 전체 평균은 1.2%다. 지난해 전체 담보대출의 약 90%가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가난할수록 집까지 내놓아 교육비를 총량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저소득층은 '하우스 푸어'에 '에듀 푸어(Edu Poor)'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저소득층에 에듀 푸어가 더 많은 것은 가파르게 오르는 사교육비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교육비는 2011년 1분기에 월평균 12만5000원이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는 월평균 9만7000원으로 줄었다. 이는 소득 상위 20% 가구의 교육비 66만8000원의 7분의 1 수준이다. 저소득층의

월평균 교육비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월평균 공교육비가 8만1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급감한 덕분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교육비인 학원비는 3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21.1%나 늘었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상승률은 소득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가계소득은 지난해 1분기 월 110만원에서 올해 1분기 120만원으로 9.3% 오르는데 그쳤다. 문제는 물가상승률 축소, 경기침체에도 학원비의 상승세는 가파르게 계속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3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학생 학원비는 5.3%, 고등학생 학원비는 5.0%, 초등학교 학원비는 4.7%씩 경중 뛰었다. 소득이 줄면 각종 소비는 줄어들게 마련인데도 소득 하위 20% 가구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예외가 된 것이다.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쓴 교육비는 월 66만8000원이다. 하위 20%의 6.8배다. 공교육 비용을 빼고 학원비만 따지면 격차는 7.3배로 늘어난다. 공식통계가 이런 만큼 실제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

### ■ 새얼굴

## “지역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 집중”

### 김대섭 광주본부 세관장



“본격적인 FTA 무역환경에서 지역 수출기업들이 FTA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3일 취임한 김대섭(54) 광주본부 세관장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단에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통해 국민의 사랑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세관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세관장은 경북 영양출신으로 재정경제원 예산실, 관세청 기획관리실, 창원세관장,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등을 거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찬밥 신세’ 자전거 보험

### 도난·파손 보상 없어 외면...3년간 4만건 못미처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자전거보험이 외면받고 있다. 자전거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6000여명에 그쳤고 해당 보험을 파는 손해보험사도 5곳에 불과하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자전거보험 가입은 8225건이었다. LIG손해보험 5053건, 삼성화재

3089건, 동부화재 79건, 현대해상 4건이다. 2009년 6월 출시된 자전거보험은 지난해 3월까지 3만여건을 파는데 그쳤다. 지난 3년간 가입 건수를 모두 합쳐도 4만건에도 못 미친다. 국내 자전거 보유 대수는 1억5000여만대다. 국민 1인당 3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생활 밀착형 레저·운송 수단이다. 그러나 정작 자

전거 사고 시 보상해주는 보험 가입률은 1%도 안 되는 셈이다. 자전거보험이 부진한 데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자전거보험의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났을 경우’로 한정돼 있다. 도난이나 파손 등 보상은 없어 실용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보험사들이 수익 저하를 이유로 자전거보험 판매를 외면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자전거보험을 파는 손보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뿐이다.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을 빼면 나머지 보험사의 자전거보험 실적이 연간 수십건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연합뉴스

# 여수국제 청소년축제

## 제12회 청소년축제

### 2012. 7. 27(금) ~ 7. 29(일)

### 웅천친수공원 및 여수시 일원

**[주요행사]**  
 국제교류캠프 | 개/폐막식 | 포럼 | 음악전시  
 K-POP콘서트 | 국제댄스경연대회 | 해양레포츠체험  
 전국마술경연 | 열기구체험 | 체험프로그램등

레인보우

와인힐비너스

FIRST

B.A.P